



2일 광주시 송광운 북구청장과 직원들이 시무식을 대신해 문흥동 노인복지센터 사랑의 식당에서 어르신들에게 떡국 배식 봉사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2일 광주시 서구청 직원들이 청사 1층에서 각자의 소원이 담긴 풍선을 들고 '2018년 첫 근무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광주·전남 기업하기 더 **안** 좋아졌다

대한상의 '전국규제지도' 발표, 기업 만족·규제 환경 악화...전국 평균은 상승

나주시 '기업체감도' 전국 3위...여주시·영광군 '경제활동친화성' S등급 위안

기업하기 좋은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는 '전국규제지도'에서 광주·전남 지자체의 점수가 대체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평균 점수가 전년보다 상승한 가운데 지역에서는 되레 낮아진 것이어서 기업 만족도와 규제 환경이 악화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환경과 전국 8700여개 기업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분석한 '2017년 전국규제지도'를 최근 공개했다. 대한상의는 2014년부터 전국규제

지도를 작성하고 있다.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다룬 '기업체감도'와 지자체별 조례·규칙 등을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 등 2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올해 기업체감도의 경우 평균 점수가 작년보다 0.4점 상승한 70.5점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역별로는 울산 동구가 1위를 차지했다. 2014년 69.3점을 기록한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한 수치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친화성 전국 평균점수는 79.1점으로 지난해보다 4.3점 상승했다. 최상위등급(S)

으로 평가된 지자체가 133개로 전년(49개)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하위등급(C·D)을 받은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광주 광산구가 기업체감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또 경제활동친화성 부문 1위도 영광군이 차지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과는 달리 광주·전남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좋지 못했다.

나주시가 기업체감도 부문에서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여주시와 영광군 등이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을 정도다.

특히 지난해 높은 평가를 받은 기업체감도 부문에서 A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함평군과 광주 남구를 비롯해 14곳 13.6%(전국 103곳)에 그치는 등 저조했다.

이와 관련 지역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기업환경지도가 공개된 이후 지자체간 우수사례를 상호 벤치마킹하는 등 선의의 경쟁이 이뤄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지만 경제 기반이 열악한 광주·전남 지역은 전년보다 성과를 내지 못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있는 만큼 기업유치와 제도개선 등에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노력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대만 크루즈 관광객 4천명 전남 온다

4·6월 여수항 입항

대만의 크루즈 관광객 4000명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여수에 입항한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두 차례에 걸쳐 홍콩 크루즈선사 '스타 크루즈'의 5만t급 크루즈 '아쿠아리우스(Aquarius)'호가 오는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대만 관광객 4000명을 태우고 대만 지릉(基隆)을 출발해 여수항에 입항한다.

스타 크루즈는 1993년부터 홍콩에 본사를 두고 홍콩, 대만 등을 모항으로 운영해온 아시아 대표 크루즈 선사로, 그동안 동남아 항로 중심으로 운항해 왔다.

현재 5만~7만t급 크루즈 선박 4척을 운항 중이며, 2020년 투입 목표로 20만t급(승객 5000명 탑승) 크루즈선 2척을 추가 건조하는 등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다.

올해 지릉~여수 항로에 투입되는 아쿠아리우스호는 여객 1511명, 승무원 756명이 탑승하는 대형 크루즈선이다. 오는 4월

과 6월 두 차례 대만 지릉항을 출발해 여수항에 입항한 뒤 여수·순천 지역을 둘러보고 일본 나가사키(長崎)를 거쳐 지릉항으로 돌아가는 5박6일 일정으로 운항한다.

승무원을 포함한 탑승객 2000여명은 개별 관광객으로, 여수 해상케이블카, 레일바이크 체험, 순천 낙안읍성 등을 둘러본다.

저녁에는 여수 향토 음식을 즐긴 후 여수박물관에서 박람회장 명물인 빅오소와 여수 밤바다를 관람하는 시간도 갖는다. 스타 크루즈선사는 오는 4. 6월 2차례 입항한 성과가 좋을 경우 입항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신규시장인 대만 크루즈 유치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지난해 대만과 일본에서 크루즈포드 세일, 크루주 협회, 여행사 방문 세일즈를 진행해왔다.

한편,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46항차 12만명의 해외 크루즈 관광객이 전남을 방문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주독일 대사에 정범구 전 의원 임명

상하이 총영사에 박선원 전 靑 비서관

정부, 대사 29명 등 인사



정범구 대사 박선원 총영사

주인도 대사에 신봉길 전 외교안보연구소장, 상하이 총영사에는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각각 임명하는 등 대사 29명, 총영사 10명에 공관장 인사를 추가 실시했다.

정범구 신임 대사는 제16·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신봉길 대사는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의 외교 자문그룹인 '국민아그레망'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박 총영사는 참여정부 때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등을 역임했

으며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안보상황단 부단장을 맡은 바 있다.

주프랑스 대사에는 최종문(무고시 17회) 전 다자외교조정관, 주스웨덴 대사에는 이정규(외시 21회) 전 차관보가 임명됐다. 조준혁(외시 16회) 전 외교부 대변인은 주페루 대사, 한동만(외시 19회) 재외동포영사대사는 주필리핀 대사에 발탁됐으며, 주아제안 대사는 김영재(외시 24회) 주리비아 대사가 기용됐다.

정부는 또 노무현 정부 시절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주교황청 대사에,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지낸 박금옥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주노르웨이 대사에, 언론인 출신인 최규식 전 국회의원은 주헝가리 대사에 각각 임명했다. 여성 공관장으로는 박금옥 대사와 함께 주피지 대사에 조신희 해수부 국제해양정책관이 발탁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남, 남북관계 현안 포괄 논의 북, 평창 실무회담 제의할 듯

정부, 남북고위급 회담 제안

정부가 오는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당국간 회담을 열고 2일 제의함에 따라 북한이 호응할지 주목된다. 북한이 긍정적으로 화답해 회담이 열린다면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2년여만의 남북 당국회담이 열리는 것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남북 회담이 된다.

일단 현재로서는 북한이 우리측 제안을 큰 틀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전날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 의사를 밝히면서 이를 위해 남북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야 한다"며 "지금은 서로 등을 돌려대고 자기 입장이나 발휘 때가 아니며 북과 남이 마주 앉아 우리민족끼리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 출로를 과감하게 열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북측이 대화를 통한 남북 간 현안 논의 의사를 최고지도자의 입을 통해 직접 밝힌 만큼 남측 정부의 대화 제안을 과거처럼 묵살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군다나 정부는 이번 회담의 형식을 고위급회담으로 제안함으로써 회담 의제를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뿐 아니라 남북관계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북측이 처음부터 남북관계의 판을 키우는 데 부담을 느낀다면 수정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가 주요 이슈인 만큼 체육회담이라는 실무적 회담 틀을 염두에 둘 수도 있다.

특히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고위급회담을 하면 북핵문제나 미사일 문제 등 북한에 부담스러운 의제들이 거론될 수 있는 만큼 이를 피하려고 우선 실무회담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정부는 북한이 수정제안을 하더라도 회담이 개최되는데 집중해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조명곤 통일부장관은 2일 회견에서 "북측이 나름대로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장소·형식을 제안해 온다면 우리로서는 좀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회담의 수정제안을 하다면 장소를 남측에서 제기한 판문점이 아니라 과거 남북경제협력의 현상이었던 개성이나 금강산 지역을 요구함으로써 남북 간 경제협력의 시급성을 부각하려고 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

푸드트럭 영업,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정부, 새해 첫 국무회의

정부가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푸드트럭 영업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및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로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

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기부자가 기부시점에 전대차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전대를 허용한 것을 앞으로는 무상사용 기간 중이라도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으면 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또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맺고 지정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감감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해당 기업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 /박지영기자 jkpark@

임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연수원·요양병원
변경 가능 **호텔**
· 구례 산동 운전지구, 4층, 대형 모델
· 대 573평, 건 683평, 객실 58개
· 전체 물수리, 연3억 이상 순수익가능
· 매 18억, 주인직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가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배속삭~~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생활동력이 불규칙하신 분

010-3598-7080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주택

• 치평동 5층 건물(보증금 1,7억 월980만) 매 25억원
• 금호동 7층 건물(보증금 5,4억 월1,300만) 매 32억원
• 용봉동 4층 건물(보증금 1억, 월745만) 매 17.5억원
• 하남동 4층 건물(보증금 6,2억 월2,200만) 매 53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 28억원 (보 2억원, 월1,200만 포함)
• 산정동 2층 건물(보증금 2억 월1,100만) 매 27억원
• 월곡동 5층 건물(보증금 4억 월 540만) 매 25억
• 쌍암동 5층 건물(보증금 3억 월 1,580만) 매 43억
• 송정동 물류창고 대1,000㎡, 건500㎡ 매 24억
• 장덕동 3층 원룸 대291㎡, 건485㎡ 매 7억(보1억 월318만)
• 장덕동 3층 원룸 대262㎡, 건400㎡ 매 8,5억(보3천만 월402만)
• 산정동 4층 원룸 대455㎡, 건660㎡ 매 13.7억(보8천 월591만)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대192㎡, 건490㎡ 매 9.5억

토 지

• 임암동 효천1지구 근생용지 320㎡ 매 10억5천
• 화정동 대지 준주거지역 1,000㎡ 매 50억
• 산정동 생산농지,창고용지 3,810㎡ 매 20억
•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45억 (물류창고, 야적장 적합)
•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답 3426㎡ 4억2천만원 (모텔허가 득)
• 담양군 대전면 성신리 1중주거지역 전 1,637㎡ 4억6천 (창고적합)
•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계획관리지역 전 5,000㎡ 매 8억5천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태양광 발전소 삽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견적 설계·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각도 조절, 잡초 제거(물막, 애초기)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헌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담 010-8813-4770